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전북자치도교육청, 1형 당뇨·희귀난치성 질환 학생 1인당 최대 500만원 약제비·특진료·MRI·CT검사비·상급병실료 차액과 식대 포함 금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난치병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초중고 및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1형당뇨, 암, 심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의 차액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5일까지 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춰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배움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DH그룹 이정권 회장이 지난 2일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전북대학교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방위산업 인재 양성에 관심… 대학 경쟁력 향상 기원”

DH그룹 이정권 회장, 전북대에 발전기금 5000만원 기부

DH그룹 이정권 회장이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전북대학교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4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정권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전북대가 추진하는 방위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출연했다.

DH그룹은 광주권 자동차부품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설립 10년 만에 매출액 1조 원을 넘긴 지역산업 주력그룹이다.

생활가전을 주력으로 하는 DH글로벌로 시작해 현재는 자동차 분야 전문기업인 DH오토웨어, DH오토리드, DH정공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료시스템 등 주력사업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룹의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통합 중앙연구소(경기도 화성시 동탄소재)를 설립·운영 중이다.

이정권 회장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드론 기술 등 방위산업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DH그룹은 평소 방위산업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다”며 “특히 새만금 지역과 전북의 핵심이 되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에도 관심이 높아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은호 방위산업연구소장은 “전북대는 현재 방위산업기업과의 협약 등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인 방위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완주에 있는 DH오토리드(자동차 핸들) 공장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DH오토리드는 스마트시범공장 및 K-스마트 등대공장사업들을 통하여 스마트공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고객사 품질5스타 달성 등 품질과 생산성을 모두 갖춘 자동차 부품산업의 대표적인 선두기업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방위산업 분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방위산업융합전공(글로벌융합대학 융합학부)을 개설해 올해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했다.

또한 방위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 방위산업 기업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와 전북대학교 및 지역의 역할’ 주제의 워크숍도 추진했다.

나아가 K-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미래 먹거리 신산업단지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 전북대-전북특별자치도-기업-부산전대의 K-방위산업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생물산업기계공학과와 ‘동화’ 팀

스마트농업 AI 경진 본선 진출

전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농업 디지털 및 지능화 연구실(지도교수 양명균)과 ㈜씨더스 ‘동화’ 팀(팀장 양명균)이 농업융합기술경진대회(농업융합기술경진대회) 2차 본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본선에 진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딸기 작물을 대상으로 지역 농가의 생육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생육을 예측하는 원격 해커톤 방식을 진행했다.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은 각 팀이 개발한 AI 농업 모델을 실증하게 되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천안 제1고등학교 유리온실에서 AI 기반 재배 환경과 알고리즘 제어를 통한 딸기 재배 실증을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총 상금 1억 원이

순위에 따라 분배되며,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팀,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팀, 우수상(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상, 농협중앙회장상) 2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양명균 교수(생물산업기계공학과)는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회에서 우리 연구실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디지털 농업을 위한 연구실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본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화’ 팀은 전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농업 디지털 및 지능화 연구실 소속 인원 5명과 ㈜씨더스 표현체팀 2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농업 디지털 및 지능화 연구실 인원은 양명균 교수, 최우주(박사과정), 이성환(석사과정), 김영진(4학년), 정도균(4학년)이며, ㈜씨더스 구성원은 이도신 팀장과 조광현 주임 등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주시기업반 취업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운영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비전대는 전주시로부터 학생 교육비로 1억원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수료 후 협약 기업에 취업한 학생 1명당, 5년 동안 최대 4,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4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취업창업처를 중심으로 전주시 및 지역 기업과 협력해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양성된 전문 인력의 우선 채용을 목표로 종합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은 전주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신설했다.

전주비전대 취업처 박심훈 처장은 “지자체와 지역 기업,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 강화 지원부터 일자리 보장 및 재직 지원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지역 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전주비전대학교는 지역성장을 위해 전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실력과 바른 인성 키우는 전북 교육’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1~15일 '2024 교육가족 공모전' 개최 미래·교실·수업·꿈·직업 등 5가지 키워드로 동시 등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15일 '2024 교육가족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동시(초등학생)와 숲속 영상(중·고등학생/교직원), 사진(초·중·고등학생, 교직원) 등으로 실시된다.

공모전은 미래, 교실, 수업, 꿈, 직업 등 다섯 가지 키워드로 △교육 주체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학교 현장 사례 △교육 주체의 교육 활동 보호 실천 모습 △모두가 행복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육 주체의 노력 등을 담아 내면 된다.

응모 희망자는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e.go.kr)-부서/소속 주요사이



트-대변인-공모전 메뉴를 클릭한 후,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동시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신해

답임교사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숲속 영상은 개인 및 단체(5인 이하)도 가능하다.

분야별로 복수 응모가 가능하며, 작품 설명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분야별 대상 4편, 최우수상 10편, 우수상 19편, 장려상 39편 등 총 72편을 선정해 교육감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담당자(063-239-3153)에 문의하면 된다.

오재승 대변인은 “이번 교육가족 공모전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나아가, 참신한 콘텐츠 발굴로 전북교육정책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제주 개최 전국상업경진대회 도내 10개 학교 106명 참가

올해 경진 11·경연 4 등 총 15종목 치러져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 직무능력 함양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7~9일 제주 일원에서 열리는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도내 10개교, 106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서 기량을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경진종목 11, 경연종목 4 등 총 15종목이 치러진다.

경진 종목은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ERP(전자자원관리) △금융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조주) △세무실무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프로그래밍 등이다.

또 경연 종목은 △경제골든벨 △동아리콘테스트 △창업동아리엑스포 △대회홍보 크리에이터 등이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별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심화캠프를 운영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을 함양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4 전북형 창업패키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창업패키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산업 유망 기술 및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초기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일 전주대에 따르면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5개사를 선발한다.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E-mail(startup@naver.com)을 통해 신청받는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시제품 제작, △인력 교육, △마케팅, △시식 채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성공적인 시장 개척과 인재를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탄소 소재 인증·분석 지원, △연한 투자유치 IR 등 초기창업기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창업지원단 김상진 단장은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혁신적인 도내 초기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미래의 스타 창업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3년간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할 노후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기창업기업에 필요한 지원 및 인프라, 연계사업 등을 지원해 ‘전북형 유니콘 기업’을 배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www.jj.ac.kr/jstartup)나, 전화(063-220-2846, 2847)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지난 2일 순창제일고에서 조승현 전북대 사회대학장과 이연호 순창제일고 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와 관련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도전 지원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순창제일고와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조승현)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공모에 도전하는 순창제일고등학교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일 순창제일고에서 조승현 전북대 사회대학장과 이연호 순창제일고 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별 자율적 교육발전 모델을 운영하고, 그 실적을 일반고로 확산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 사회대는 디지털 영상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순창제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사실 및 실습 체험, 초청 특강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택교과의 확대와 창의 체험 활동의 활성화, 디지털 영상 미디어 및 AI, 관광산업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승현 학장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순창제일고에 전북대가 갖고 있는 우수 인프라를 집중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이 미래인재 양성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취업 명사특강

전주비전대학교 취업처는 지난 2일 대강당에서 '2024년 취업 명사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무인도시스템연구소(대표 윤승철) 대표를 초청해 ‘청춘, 가슴 뛰는 일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윤승철 대표는 “사막에서 6박 7일 동안 목욕도 걸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당시 내가 이 무라톤을 왜 한다고 했을까 회의도 들었지만, 완주를 하고 나니 땀을 흘렸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비전대학교 학생들도 한가지 목표를 정하고 꾸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